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2월(제8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더욱 다양한 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오이타를 위해
오이타현 외국인 인재 어드바이저 위촉



지난달 20일, 오이타현청에서 ‘오이타현 외국인 인재 어드바이저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어드바이저로 위촉된 두 분은 오이타현 해외 메지론 서포터즈로 활동 중인 베트남 출신이자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APU) 유학생이었던 ‘사사키 이즈미 씨(佐々木 泉·호치민 거주)’와 벳푸시 출신이자 인도네시아 오이타현인회 소속인 ‘요시와타리 다케시(吉渡 剛·자카르타 거주)’ 씨입니다. 사사키 씨와 요시와타리 씨는 현지에서 인재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있으며, 외국인 인재 활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넓은 식견을 두루 갖추고 계십니다. 오이타현은 앞으로 한층 심각해질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이타현과 현지 실정에 밝은 두 분의 협조를 받고자 어드바이저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이타현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인재 분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오이타현 외국인 인재 수용 현황
(2022년 12월 기준) 15,249명

〈국가별〉	〈재류 자격별〉
1위 : 베트남(3,159명)	1위 : 기능 실습
2위 : 중국(2,279명)	2위 : 유학생
3위 : 한국(1,727명)	3위 : 전문·기술 분야

달콤한 토마토와 신선한 가자미 드시러 오세요!
히지정 소식 히지정 日出町



‘히지정’은 북쪽에 ‘가나고에 연산’이 우뚝 솟아 있고 남쪽이 벳푸만과 맞닿아 있는 자연이 풍부한 성하 마을입니다. 또한, 에도 시대에 히지 번을 다스린 ‘기노시타 노부토시’가 지은 히지성의 옛터, ‘바조 금광’으로 막대한 부를 얻은 ‘나리키요 히로에’의 옛 저택 ‘데키 산장’ 등 문화재도 많은데요, 오늘은 히지정에서 맛보실 수 있는 제철 토마토와 가자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몇 해 전, 태풍으로 인해 바닷물이 유입된 한 농원에서 수확한 토마토가 굉장히 달았던 점에 착안하여 바닷물로 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히지정의 ‘해수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크기는 조금 작지만 당도가 높으며 깊은 감칠맛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당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당도 10’ 이상의 토마토는 과일만큼 달콤해서 채소라는 사실을 깜빡 잊으실 지도 몰라요.

🐟 히지정의 특산물로 빼놓을 수 없는 ‘시로시타 가자미’는 벳푸만의 해수와 담수가 섞이는 곳에서 자란 가자미로, 진흙 냄새가 나지 않으며 고급스러운 단맛이 나는 점이 특징입니다. 에도 시대에 쇼군에게 바쳤을 정도로 육질이 부드러우며, 깔끔하면서도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회, 튀김, 조림 등 어떤 요리로도 손색없는 시로시타 가자미는 5~7월이 제철입니다. 천하일미가 궁금하신 분은 꼭 히지정을 방문해 주세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2월(제8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아바케이 계곡 디오라마(나카쓰시 역사 박물관)

뚜벅뚜벅 걸으며 느끼는 정갈한 마을의 역사

박물관/성/후쿠자와 저택 나카쓰시 中津市

JR 오이타역에서 특급 열차 소닉을 타고 북쪽으로 약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나카쓰 시는 ‘가라야게 (닭튀김)의 성지’라고 불리며 오이타현 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다. 마을의 남쪽에는 나카쓰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경관인 ‘아바케이 계곡’이 있는데, 단풍철에 이곳의 동굴과 기암절벽 등을 보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나카쓰시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 ‘구로칸 군’

하지만 대중교통으로는 방문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오늘은 뚜벅이도 나카쓰를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 시내의 역사적 명소 세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나카쓰’라는 지명의 유래이자 성하 마을이 형성된 계기인 ‘나카쓰성’ ②나카쓰의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나카쓰시 역사 박물관’ ③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한 계몽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 구 저택·기념관’을 함께 둘러보며 나카쓰의 역사를 알아보자.



나카쓰성 천수각

JR 나카쓰역에서 정돈된 길을 따라 1.4km를 걸으면 검은빛을 띠는 나카쓰성의 천수각이 보인다. 나카쓰성은 성곽을 둘러싸는 해자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일본 3대 수성(水城) 중 하나로, 일본에서 가장 혼란했던 ‘센고쿠 시대’의 마지막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인 ‘구로다 간베에’가 1587년에 짓기 시작하여 1600년에 ‘호소카와 다다오키’가 완성하였다. 그 후 오가사와라 가문에 이어 오쿠다이라 가문이 나카쓰를 다스렸고, 현재 성 내부의 자료관에서 갑옷 등 당대의 보물을 볼 수 있다.



(왼쪽) 호소카와 시대 석벽 (오른쪽) 구로다 시대 석벽

나카쓰성의 석벽은 1500년대 후반에 사용된 축성 기술인 ‘아노우즈미(穴太積み,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쌓는 기술)’ 방식으로 지은 현존하는 규슈 최고(最古)의 근세 성곽이다. 다만 구로다 시대에 강과 맞닿은 성의 북쪽에 한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성을 짓고자 가공석을 사용하였는데, 그로 인해 위 사진처럼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모순점에 대해 나카쓰시 역사 박물관은 학생들에게 학습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2월(제8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나카쓰시 역사 박물관

나카쓰시 역사 박물관은 2019년 11월에 나카쓰시 역사 민족 자료관을 개편하여 개관한 곳으로, 나카쓰의 민속·역사 자료(나카쓰번의 정책·네덜란드학·의학 관련 사료) 및 나카쓰 시내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상설 전시 외에도 ‘야바케이 계곡이 명승지가 된 이유’ 등의 다양한 주제로 특별 전시를 개최하기도 하며, 관내의 ‘석벽 시어터’에서 나카쓰성의 석벽과 성하 마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영상도 상영한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유·무료 체험 공간이 있어 단순히 전시를 보는 것이 아닌



체험 공간 ‘플레이 스튜디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사실 사적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나 박물관에 성하 마을과 사적에 대한 자료들이 풍부해서 모자랐던 부분을 깊이 있게 채울 수 있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사 작성에 앞서 나카쓰성의 석벽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박물관에 몇 번이고 문의를 했는데,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해 주신 덕에 나카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후쿠자와 유키치 구 저택·기념관(※내부 촬영 금지)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되는 일본의 화폐 중 1만 엔 지폐의 주인공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살던 집이 나카쓰에 남아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에도~메이지 시대의 계몽 사상가였던 후쿠자와와는 당시 나카쓰번 하급 무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훗날 서구 문명에 관심을 가지며 난학(네덜란드학) 등을 공부했는데, 인간을 계몽하기 위해 책을 쓰고 학교(게이오기주쿠)를 여는 등 일본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생애가 궁금하다면 기념관에 방문해 보길 바란다.



나카쓰 성(오쿠다이라 가문 역사 자료관)
(中津城・奥平家歴史資料館)

- 주소 : 中津市二ノ丁本丸(〒871-0050)
- 운영 시간 : 09:00~17:00(연중무휴)
- 입장료 : 성인 400엔 / 소인 200엔



나카쓰시 역사 박물관
(中津市歴史博物館)

- 주소 : 中津市三ノ町丁1290(〒871-0057)
- 운영 시간 : 09:00~17:00(월요일 휴관)
- 입장료 : 성인 300엔 / ~중학생 무료



후쿠자와 유키치 구 저택·기념관
(福澤諭吉旧居・福澤記念館)

- 주소 : 中津市留守居町586(〒871-0088)
- 운영 시간 : 09:30~17:00(12월 31일 휴관)
- 입장료 : 성인 400엔 / 소인 200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2월(제8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24화

노지의
학창시절 다이어트 이야기 1



학창시절, 입학할 고등학교를
고르는 기준이 급식이었을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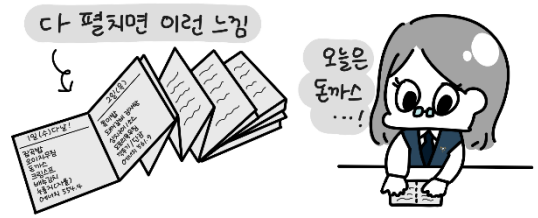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에게 먹는 건 정말 중요했다.



누군가가 간식이라도 먹으면
너나 할것없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급식표에 맛있는 메뉴를 체크해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건 일상...



나 역시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 날엔
잔뜩 먹던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런 나에게 충격을 준 사람이 있었으니
당시 팬심으로 쫓아다니던 한 선생님이였다.

